“韓미얀마 사원 ‘이주·노동·신행’ 순환 중심 공간”

최정화 서울대 강사, 종문연 심포지엄서 발표

부평 미얀마 거리 3곳 불교사원
8명 스님, 노동자, 난민 인터뷰
버마족, 소수민족마다 사원 창건
다수 버마족 사원 韓불교 교류多
라카인족 사원 등 민족 중심 활동
사원–신도, 공생적 공동체로 운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인천 부평구 광장로 4번길은 미얀마 이주민의 생활 중심공간으로 ‘미얀마 거리’라고 불린다. 불교국가에서 이주한 만큼 ‘미얀마 거리’에서는 미얀마 불교사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미얀마 불교사원이 이주민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조명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최정화 서울대 종교학과 강사<사진>는 5월 17일 열린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25 상반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경을 넘은 불교: 미얀마 이주민들의 노동과 민주화운동’에서 미얀마 이주 승려, 노동자, 난민들의 삶을 인터뷰를 통해 조명·분석했다. 최 강사의 분석 중 주목할 것은 한국 미얀마 사원의 역할이다.

최 강사에 따르면 부평 ‘미얀마 거리’에는 총 4곳으로 불교사원이 있다. 이들은 민족에 따라 창건됐는데, 가장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 전법 사원’을 비롯해 카렌족의 ‘싸띳사와디 사원’, 라카인의 ‘담마야나사사나락키따 사원’, 몬족 사원이 활동 중이다. 사원에 주석하며 신도들의 상담과 신행을 책임지는 스님도 해당 민족 출신이다.

민족이 다른 만큼 사원 운영에도 차이가 있다. 미얀마 민족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의 미얀마 전법 사원은 부처님오신날 행사인 연등회에 참석하는 등 한국불교와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소수민족 사원의 경우에는 해당 민족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진다. 최 강사가 지난 4월 13일 찾았던 라카인족 사원은 새해 불교행사를 봉행했는데, 모두 라카인족 언어와 의례로 진행됐다. 이들 사원의 운영에서 재가 신도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재가 신도 연합체인 라카인족 협회가 미얀마불교협회에 한국에서 전법할 스님의 파견을 요청하면 불교협회는 이에 맞는 스님을 파견하고, 신도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모은 재



화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고국의 민주화 운동 지원,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 대해 최 강사는 “버마족 사원이 연등회를 통해 한국불교와의 접점을 찾는 데 비중을 둔다면 소수민족에게는 불교를 통해 이주국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재현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미얀마 이주민들의 노동 이주 계기를 분석한 결과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화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국적 노동을 위한 이주는 일반적으로 역사·구조적인 모순들이 반영돼 과거 피식민지국 국민들이 식민지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행을 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은 고향에서 멀어지고 정체성을 상실하는 ‘탈구(Dislocation)’의 공간이 아닌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동적 움직임’의 산물로 인식된다는 게 최 강사의 설명이다.

이 같은 초국적 노동 이주 과정에서 부평의 미얀마 불교사원들은 이주와 노동, 불교문화·신행을 순환시키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불교사원은 노동과 타향살이에 지친 이주노동자들에게 정신·물리적 쉼터가 되며, 주석하는 스님은 이들을 상담하고 고향의 의례를 재현함으로써 일상의 쉼표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최 강사는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한국 거주는 ‘실향’이 아닌 주체적 결정이자 가능성의 발현이다. 또한 정치적 혼란기에 빠져 있는 미얀마에서 해외 이주는 독재에 정하는 자유의 공간을 창출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의 강도 높은 노동 현장은 삶을 쉽지 않게 한다. 이 가운데 불교사원은 이주, 노동, 불교문화를 순환시키는 중심적 장소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사원은 미얀마 인들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공간이며 노동을 위한 재충전을 하거나 밀려난 사람들이 머무는 정주 공간”이라며 “나아가 미얀마 불교사원들은 일자리를 상실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시를 받지 않고도 거둔다. 노동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노동 이탈자들을 수용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상 치유 여정 그려낸 스님과 작가 3人 콜라보

5월 29일까지 아트센터 자인서 ‘기도, 명상, 부처’ 주제로 전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아트센터 자인에서 5월 29일까지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과 서칠교 불상 조각가, 박청용 작가의 ‘명상 치유의 여정’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는 1년 전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이 1년 후 함께 명상과 예술을 세상에 알리는 의미 있는 전시를 펼치자고 약속한 데서 시작됐다. ‘기도’, ‘명상’, ‘부처’라는 주제 아래, 작가가 각자의 시선과 재료로 해석한 내면의 평화와 구원의 이미지들이 소개됐다.

서칠교 작가는 지난 2월 작업실 화재로 대부분의 작업물을 잃었다. 그러나 타버린 작업실 속 살아남은 청동 작품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깊이를 발견했고, 전시까지 이어졌다. 이번 전시의 모든 작품을 누구나 만져볼 수 있게 전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으름에서 발견한 청동의 질감을 관람객들도 직접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박청용 작가는 8만4000번의 기도하는 사람을 완성한 후 최근 100만 번의 기도하는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1장에 1250번씩, 총 800장을 완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9장이 완성됐다. 이번 전시에도 프로젝트의 일부가 ‘8만 4천 작품시리즈-일심·여백·단비·행·위로’와 함께 장엄하게 전시됐다.

이번 전시의 매개체가 된 저스트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네팔 안나푸르나에 위치한 저스트비 베이스캠프에서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까지 이어지는 163km의 수행 순례길을 개척하는 여정을 소개했다. 전 세계 수행자들이 함께 걷는 뜻깊은 순례길 프로젝트를 통해 참 나를 찾아 걷는 길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준한 스님은 “우연이 겹친 만남은 부처님께서 셋이 힘을 합쳐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다”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큰 힘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사진 왼쪽부터 서칠교 조각가, 준한 스님, 박청용 작가.

천년고을 진주가 품은 신앙·사상들

진주博 특별전…옥천사 시왕도 등 전시

경상도 서부 지역의 중심지였던 진주가 품어낸 역사, 신앙 등의 면면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용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천년 진주, 진주목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1000년 동안 ‘진주목’이라는 고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와 신앙, 사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다. 특히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신앙들을 살펴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4부로 진행되는 전시 중 ‘도타운 믿음이 깃든 곳, 진주’ 섹션에서는 진주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들의 품었던 희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전통의 지리산 성모신앙, 불교신앙뿐만 아니라, 근·현대 진주지역에 새롭게 들어온 종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교유산으로는 고성 옥천사 시왕도(보물), 월아산 청곡사 청동북 금고 등이 소개된다.



보물 고성 옥천사 시왕도. 국립진주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된다.

이밖에도 제1부 ‘지리산과 남해의 큰 고을, 진주’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진주목의 역사가 전개됐는지를 다루며, 제2부 ‘물산이 넉넉한 땅, 진주’에서는 진주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부 ‘올바른 뜻을 품은 고장, 진주’에서는 진주 사람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였는지를 추적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석전·만해부터 AI까지…‘동국 불교’ 살피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스님)는 5월 16일 교내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동국의 불교 전통에서 배우다’를 주제로 제19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출신 불교 선지식들의 사상과 실천이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정완 스님은 ‘석전 박한영의 교육 철학과 불교 인재 양성 연구’를 통해 석전 박한영(1870~1948) 스님의 불교 인재 양성 전략과 성과를 분석했다.

정완 스님은 “석전 스님은 불교 본래 정신의 회복을 통한 근본적 쇄신과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참여적 불교 교육을 지향했다”면서 “스님의 교육 방법은 전통 교학의 내실화, 계율 중심의 교육 실천, 근대적 교수법 및 학문의 적극적 수용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를 포괄하는 포용적 교육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만해 한용운의 간화선과 구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만해 스님의 오도송과 〈십현담주해〉 등에 나타난 스님의 간화선관과 구세관을 조명했다.



오 교수는 “만해 스님은 간화선과 관련된 여러 선적(禪籍)을 열람했고, 간화선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무호 백성욱의 불교사상과 수행법 고찰’을 통해 백성욱이 동국대 2대 총장을 역임하며 학교의 기틀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수행관에 대해서는 “백성욱의 〈금강경〉에 대한 해석과 접근 방식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가 체험한 숙명통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중일 기자

“산양 가죽신발로 봄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2025 신상출시

NEW 신상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